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박양원 / 주간 황문수 / 편집장 송종길 / 인쇄인 방우영
서울 캠퍼스 13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교환 대표전화 (965)8000 직통 (963) 5849
수원 캠퍼스 170-73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 (764)6131~3 (764)6188 (033)-(8)-6130~9

제851호 <주간> 1986년 2월24일(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1. 등록번호 다~12) 【1955년 5월 12일 창간】

오늘 제34회 학위수여식 거행

박사 39·석사 535·학사 2,991명 배출

8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오전11시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박정훈 교무처장의 사회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학위수여, 상장수여, 총장훈사, 이사장격려사 순으로 진행될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39명, 석사 5백35명, 학사2천9백91명이 학위를 받는다.

이밖에도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자 22명, 교육대학원 수료자 18명등도 배출된다. 작년에 비해 학사는 3백58명, 석사는 1백42명이 늘고 박사는 15명이 줄었는데 학부과정에서 졸업정원을 초과하여 자격고사를 치루고 졸업하는 사람은 19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영예의 이사장상은 전윤옥(치의학과)양과 김용순(체육학과)양이, 총장상은 공영윤(약학과)군과 원유선(중문학과)양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학장상은 단대별 수석졸업자에게 주어지며, 우등상은 평점 4.0이상인자 (단 학과에 4.0 이상인 자가 없을경우 최고득점자 한명) 는 모두 받게되며 공로상은 없다.

한편 이번 수여식은 호텔전문대학과 간호전문대학의 졸업식도 겸하고 있는데 호텔전문대학은 4백24명의 졸업생과 2급 지배인과정 68명이, 간호전문대학은 1백24명이 졸업을 하게된다.

다음은 학장상 수상자 명단이다. ▲문리대 : 이호진 ▲법대 : 유재천▲정경대 : 김갑수▲사범대 : 배현숙▲의과대 : 정호연▲한의대 : 홍미숙▲치대 : 김선호▲약대 : 김지영▲공대 : 김병두, 이한종, 심영보▲산업대 : 이선화▲음대 : 전소녀▲체대 : 강미선▲의대 : 백은실▲사회과학대 : 배수연▲자연과학대 : 길현주▲체육과학대 : 신정희

보직교수 인사 이동

김광석 경영대학원장등 5명

학교당국은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5명에 대한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이동은 임기만료된 보직에 대한 인사조치이며 추후 학과장 이동도 있을 예정이다.

신임 보직교수 명단은 다음과같다.

▲경영대학원장=김광석 (경제학과) 교수▲정경대학장=이명식 (정치외교학과) 교수▲약학대학장=김수여 (약학대) 교수▲자연과학대학장=민영기 (우주학과) 교수▲박물관장=탁용국 (사학과) 교수 <관련 인터뷰 5면>

대학 재무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김경창 교수

본교 회계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대학재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임기 2년인 각위원은 총장을 제외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8인과 이사장이아닌 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대학재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김경창(정경대교수) ▲위원 : 김병운(호전학장)김찬규 (기획관리실장) 박정훈 (교무처장) 이광재 (사무처장) 최유진 (치대교수) 양규희 (사대교수) 김성수 (사회대교수) 황병곤 (외국어대교수)

박이도 교수
신임 신문방송국장에

박 이도(국문과)교수가 오는 28일 임기만료되는황문수 (국민윤리과) 교수 후임으로 신문방송국장에임명됐다.

박교수는 평북 선천태생으로 본교 63년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나왔으며 80년부터 본교에서 재직해왔다.

한편 박교수는 62년 시「황제와 나」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시인으로도 활동중이다.

도서 대출중 발급

수원캠퍼스 도서관은 새학기 도서대출출입증에 대한 신규발급및 정기등록확인을 실시한다.

재학생의 경우 오늘부터 3월14일까지 1학기 등록영수증(신규는 명함판사진 1매포함) 을, 신입생은 3월4일부터 14일까지 명함판사진 1매를 가지고 도서관 소지품보관소에 접수하면 된다. 배부는 3월7일, 14일 양일간 同장소에서 한다.

신학기 등록 오늘부터 4일간
등록금 3%인상, 학생회비 반액인하

새학기 등록이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관 경리과에서 실시된다.

등록금은 지난 학기에 이어 3%인상(단 특수대학원 85년도와 동일)되었는데 학생회비는 도리어 50% 인하(3천원) 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조정된 등록금은 다음과 같다. (학생회비 포함)

▲문리대 인문계열, 법대, 정경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외국어대, 사회과학대, 가정관리과(1, 2학년에 한함)=57만6천원▲문리대 이학계열,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공과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산업대, 자연과학대, 음악대, 체육대체육과학대, 가정관리학과(3, 4학년에 한함)=59만4천원▲각예과=65만7천원▲간호학과, 약학과=63만4천원▲의학계본과=70만5천5백원이다.

한편 장학생및 추가등록자등 특기간은 추후발표된다.

체육특기자 선발 확정
19개종목에 1백10명

86학년도 체육특기자 입학생이 축구, 체조, 복싱 등 19개 종목에 걸쳐 확정되었다.

서울캠퍼스 37명, 수원캠퍼스 73명으로 총 1백10명이 확정된 특기자 입학생의 종목별 인원은 다음과 같다.

▲축구부=홍위표(대전상고)외 7명▲야구부=탁명렬 (인천고) 외 8명▲농구부=손홍길 (홍대부고) 외 4명▲체조부=임군기 (서울체고)외 4명▲아이스하키부=서태석 (서라벌고) 외 9명▲복싱부=최재훈(경북체고)외 6명▲싸이클부=유미석(정의여고) 외 3명▲핸드볼부=이성호 (대광고)외 3명▲검도부=이광택(퇴계원고)외 3명▲육상부=박월규 (구로고) 외 5명▲유도부=김상기 (서울체고) 외 5명▲역도부=김광태 (광성고) 외 1명 ▲사격부=정태판 (서라벌고)외 3명▲탁구부=이미우(계성여고) 외 4명▲하키부=양경란(관악여상)외 7명▲럭비부=이재헌 (동도공고) 외 8명▲배드민턴부=이은종(중평여고)외 1명 ▲태권도부=김경환 (서울체고) 외 8명

산업대 수원캠퍼스로 이전
기존건물은 한의대서 사용

산업대학이 지난 21일, 금년 졸업생을 끝으로 수원캠퍼스로 이전했다.

이번이전은 20·21일 각학과의 기자재 (총3백43종8백74점)를 옮김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신학기부터는 오는 3월초 완공되는 수원캠퍼스 산업대학관에서 수업받게 된다.

산대 이전에 따른 건물의 이용에 관해 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산대 복학생들과 한의과대학에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대 휴학생중 83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입학당시의 약속에 의거 서울캠퍼스에서 계속 수업을 받게된다.

수원 행정부서 이전
교무·학생처등 7개

수원캠퍼스 총무처는 새학기부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행정부서 일부를 이전해 업무를 보게 된다.

이전된 부서및 이전장소는다음과 같다.

▲학생처=체육교육관104~105호실▲경리과=체육교육관 113호실▲외환은행=체육관 113—1호실 ▲예비군대대=체육교육관 115—1호실 ▲관리과=체육교육관 111호실▲학군단=외국어교육관131~136, 231, 236호실 ▲교무처=체육교육관109호실.

신입생 종합 오리엔테이션
25일부터 크라운관 등에서

신입생 종합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30분 서울캠퍼스는 크라운관, 수원캠퍼스는 이공교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장소문제로 예년과는 달리 6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무행정, 사무행정, 도서관 이용, 군사교육등 학교생활에 필요한제반사항에 관한 안내와 응원연습, 총학생회 활동소개등이 있게된다.

각 단대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5일 : 문리대 어학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외국어대, 사회과학대▲26일 : 문리대 문학부, 정경대(주간)공대, 산대▲27일 : 법대, 사대, 음대, 체대, 정경대(야간)·자연대, 체과대

R.O.T.C.전원 임관

학생 중앙군사학교에서 실시하는 ROTC승급및 임관고사에 본교 응시자 2백8명이 전원 합격했다.

이번 임관고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정경찬 (사학과)군등 5명은 임관식에서 국무총리상, 국방부 장관상등을 수상하게 된다.

한편 본교 학군단은 육군본부에서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되었다.

김영의·정두원君 1차 공판

김영의 민주제 개헌추진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정두원 (사학3)군이 1차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2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이날 공판에서 김위원장과 정군은「집시법」위반등이 적용되어 형량을 구형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8일 오전 9시30분 同장소에서 있게 된다.

김위원장과 정군은 지난해11월8일 중량교 가두시위와관련, 구속되었었다.

2학기 학사징계 총8백4명

전체 6.3% 제적 23·유급 79명

교무처는 지난 학기 성적집계에 따라 학사경고 8백4명, 제적 23명, 유급 79명에게 학사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학칙 제34조6항 및 제35조에 의거 평점이 1.70미만인 자와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의·한·치대 18학점 미만)에게 학사경고를, 연속 또는 통산 4회이상 학사경고자중 81학년도 이후 입학자(체육부가 인정하는 체육특기자는 제외) 에게 제적처분을했다. 또 본교에서는처음으로 학사경고 2회에 해당하는 유급처분을 1학년에 한해 당해년 취득학점이 25점미만자와 평점평균이 1.50미만자, 의·한·치·약대는 평점평균이 2.0미만자와 한 과목이상 과락자(간호대, 약대제외)에게 했다(단, 85학년 2학기 복학자, 체육부가 인정하는 체육특기자 제외)

한편 학년별 경고자수는 1학년 3백41명(6.89%), 2학년3백34명(7.79%), 3학년 1백 29명(3.73%)으로 1학년이 제일 많으며 총 경고자수는 8백4명으로 전체 6.33%이다.

국문과 민속·방언답사

국문학과「민속답사」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서산군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답사는 민속 자료의 현장조사가 목적으로 구비문학, 민간신앙, 세시풍속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참가인원은 총 9명이었으며 지도교수는 김태곤교수였다.

한편 「탁본·방언 답사」도 17~21일에 걸쳐 실시됐다. 장소는 백제 문화권인 부여·공주이며 조사대상은 방언, 전적, 탁본으로 서정범 교수의지도아래 총10명이 참가했다.

동계 계절학기 총 14과목 개설
수강신청 5명 이상인 영어·정치학 개론등

지난 1월6일부터 2월1일까지 4주간 개설된 동계 계절학기는 총14과목에 1백18명이 수강을 했다.

마지막 동계 계절학기였던 이번 계절학기는 지난해보다 6과목이 더개설되었으며 수강생도 3명이 늘었다.

개설됐던 과목과 수강자 수는▲영어 15명▲국사 6명▲수학 6명▲문학개론 7명▲문화사 9명▲정치학개론 10명▲경학개론 9명▲경영학개론 11명▲사회학개론 13명▲행정학개론 7명▲법학개론 8명▲일본어 5명▲물리학및 실험 8명▲생물학및 실험 4명등이다.

한편 이번 계절학기의 개설요건은 원칙적으로 신청자10명 이상인 경우이나 수강신청자부진으로 5명이상이면 모두 개설되었다.

방학중 부직알선 45명

수원캠퍼스 학생처에 따르면 동계방학중 아르바이트를 알선받은 학생은 총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 10여명이 늘어난 이번 아르바이트 알선을 직종별로 보면 거리질서 30명, 사두보조 9명, 속직근무 6명의 순이다.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
來 3일까지 복지위서

복지위원회에서는 25일까지 각단대 휴게실과 학생회관에서 매점자판기를 운영할 아르바이트생 68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작년에 일했던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이며 신청시구비서류는 복지위원회 소정의 신청서와 재산세 과세 증명서이다.

김성식·이휘영 교수
지난달 자택서 별세

사학과 김성식 명예교수가지난달 24일 오후 4시 명륜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김교수는 평남 평원 태생으로 일본 구주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수를 거쳐 본교 명예교수로 재직해 왔다.

유가족은 김교수의 소장도서를 본교에 기증하기로 했다..

불문과 이휘영 대우교수가지난달 6일 오전 7시 자택에서급환으로 6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교수는 일본의동경 아테네프랑세를 나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84년부터 본교 대우교수로 재직해 왔다.

한의대 국가고시 전원합격
치대·약대도, 의대는 96%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에서 본교 의대는 96%, 한의대및 치대·약대는 1백%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달 11일 실시한 제49차 의사 국가고시에서 의대는 전년도 누락자 6명을 포함해 총 83명이 응시해 3명만이 탈락, 작년과 같은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한의대는 제39회 한의학 국가고시에 84명이 응시, 전원합격함으로써 11년 연속 1백% 합격을 기록했으며 치대및 약대도 각각 88명, 46명이 응시 작년에 이어 전원 합격했다.

호전 합격자 발표
3.9:1의 경쟁률 보여

호텔경영전문대학 합격자 발표가 지난 22일에 있었다.

4백60명 정원에 1천8백22명이 응시 3.96 :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시에서 전체수석은 관광통역학과를 지원한 홍철(경복고) 군이 차지했다.

"우리네 대학인이 바라는 최소한의 기원"

枝是塔

▼얼마전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사람들의 계절감각이 성큼 봄으로 다가선 것 같다. 그러한 계절감각 탓인지 지나간 겨울에 대한 생각들이 새롭게 뇌리에 파고든다. 생각컨대 지난 겨울은 너무 추웠다. 친구마저 떠나버린 교정위로 쏟아지던 그 숱한 아품의 상처들「서울대 시위 관련 학생 1백89명 구속」「가두시위 가담자는 전원 구속방침」「전국대학 야간 수색」「수사전담반 구성, 시위학생은 끝까지 추적 연행할터」「대학가 하숙·자취집수색키로」「문제학생○○명수배」「교문폐쇄」「대학내 외부인 출입통제」이러한 말들을 접하면서 지난 2학기초 대학가 보도블럭이 붉은빛 아스콘으로 바뀔때 이를 풍자한 어느 대학신문의 만평을 생각해 내고는 혼자 으스스 몸을 떨어야했다.「대학가 접근금지, 위험지역」

▼그러던 와중이라 생각된다. 등교길에 무심코 바라본 교문밖에「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부인과 외부차량의 교내 출입을 통제함」이란 내용의 게시판이 서 있었다. 이를 두고 어느교수는「행정구조상의 위계질서에 의한 눈가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후 교내에서 벌어진 풍경들은 교시탑구를 아연실색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에 가보니「첫사랑」인가 하는 TV연속극 촬영중이란다. 분명 우리학교 학생들은 아닌데 그들은 외부인도 아닌 모양이었다.

▼창작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이런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다. 그들을 보며 이제 대학의가치는 건물로만 존재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때문이다. 그연속극의 스텝진들은 분명 대학의 정신이라던가 사명을 필름에 담고 싶어서 우리학교를 찾은것은 아닐것이다. 단지 공간적 배경만이 건물만이 필요했을뿐이다. 세상사람들의 모든 사고가 그리될까 무섭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어제는 우리민족 고유 명절중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이였다. 옛부터 그 날에는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어제도 소망을 실은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을 흐르고 동산위에 조용히 고개숙여 합장한 모습들이 강산을 수놓았을 것이다. 그많은 우리네 사람들이 바라던 최소한의 기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뜻을 거역치않는 상황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젠 정녕「봄」을 맞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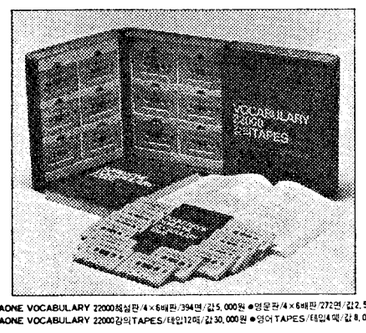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한 KOREAONE ENGLISH COURSE

KOREAONE
VOCABULARY 22000
Harold Levine 해설 및 보충 ●김 영 로

해설판 전세계 영어 학도에게 너무도 유명한 Harold Levine 원저 VOCABULARY 22000의 핵심 내용을 가장 알기 쉽게 해설하여 혼자서도 고도의 어휘력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해설서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원저에도 없는 상세한 어휘 설명을 수록하여 영어학습 교재의 신기원을 이룩한 쾌저!

강의 테입 영어교육의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강의로 유명한 영어의 귀재 김영로 선생이 이 책의 해설, 보충과 아울러 직접 강의 해설을 맡아, 새 단어의 의미론이와 중요한 어휘해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요령, 또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정확하고알기 쉽게 강의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이 책을 마스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혁신적인 강의 TAPES!

영어 테입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STUDY YOUR NEW WORDS 부분을 두 미국인 교수의 정확한 발음으로 빠짐없이 녹음, 소리를 들으면서 내용을 익힐 수 있으므로 몇 배의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음은 물론 Listening Comprehension 훈련에도 큰 도움을 주어 어휘력 학습에 일대 진전을 가져다 줄 영어 TAPES!



●KOREAONE VOCABULARY 22000해설판/4×6배판/394면/값5,000원 ●영문판/4×6배판/272면/값2,500원
●KOREAONE VOCABULARY 22000강의TAPES/테입12개/값30,000원 ●영어TAPES/테입4개/값8,000원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책!
英語順解
Super English Reading
●김 영 로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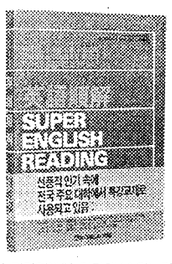
1 보다 완전한 영어습득 위한
英語順解·Super English Reading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과 대학생, 취직시험, TOEFL, 대학원 입학 시험및 각종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 TIME 이나 Newsweek 와 같은 영어 잡지를 접하지 않고 읽으시려는 분은 지금 곧 이 책을 잡으십시오.

2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최고급 영어까지 습득할 수 있는
英語順解·Super English Reading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쾌이한 말에서부터 세계의 석학들이 쓴 논문에 나오는 최고급 영어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어 놓았으므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실력이면 누구나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엮어져 있읍니다.

3 비교언어학적 방법을 도입한 영어독해서
英語順解·Super English Reading
편저자는 문법 중심의 전통적 영어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비교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영어의 기본 구조와 논리적인 특징까지도 파악토록하는 교습법을 도입, 거의 완전한 영어를 쉽게 구사할 수 있는길을 열어 놓았읍니다.

4 오래 기억에 남을 주옥 같은 명문장
英語順解·Super English Reading
편저자는 이 책을쓰기 위해 거의20년 동안의 TIME, Newsweek, Reader's Digest와 같은 영어 잡지와 신문을 비롯, 각종 분야의 학술지와 논문, 영어책에서 예문을 뽑았으므로 수준높은 교양을 쌓으시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청취력 향상에 공헌한
英語順解Tapes
英語順解의 모든 예문을 미국인 영어교수와 어나운서의 깨끗한 오리지날 음성으로 담은 카세트 테입을 제작중에 있읍니다. 이 책을 읽어서 내용을 익힐 때쯤이면 가까운 서점에서 영어순해 테입을 시중의 어떤 교재 테입보다 저렴한 값으로 구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8배판/378면/값7,000원
●서점에 있읍니다.

全國 大學,學院 동계 방학 특강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광운대 경기대(수원) 경북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서강대 성균관대(수원) 이화여대 외국어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청주대 충북대 충남대 한양대 호남대 흥익대(서울) 종로 외국어학원 현대 외국어학원 파고다 외국어학원(수원) 종로 외국어학원(대전) 하미 외국어학원 영미 외국어학원(광주) 한미 외국어학원 동아 외국어학원 시사 외국어학원(부산) SWS 외국어학원 제일 외국어 학원(대구) 코리아 헤럴드학원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6622호 영업부 : (739) 7741~3 편집부 : (730) 8082~4

인류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삶의 詩!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파스테르나크의
감동에 넘치는 大作《의사 지바고》!

의사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안정효 옮김

바리키노의 눈 속에 파묻혀 시를 쓰고 사랑하는 라라와 지바고, 외롭게 죽어가는 혁명아 스트렐니코프, 그리고 가혹한 현실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주인공들의 뜨거운 삶의 이야기!

러시아 혁명, 사랑과 그 고뇌, 죽음,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치열하게 다룬 불멸의 명작!

너무 강렬하고 아름다운 작품!
안정효의 한국어 완역판! 6판 돌입!

*이 작품은 차라리 종교적이기도 하며 한없이 감동시키는 사랑의 얘기이기도 하다. —런던 타임즈

*신국판/㊧㊨각권 각360면 내외
각권 값2,800원/♣서점에 있읍니다.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6622호 영업부 : (739) 7741~3 편집부 : (730) 8082~4

●우리시대 가장 위대한 보헤미안의 고뇌와 환희의 기록●
니코스 카잔차키스全集 1
神과의 투쟁으로 점철된 고해성사!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진 영혼의 외침!

영혼의 自叙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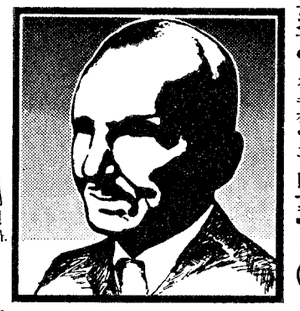
피로써 고백하는 生에대한 엄숙함!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려는 기도문!

● 나는 당신의 손에 큰 황이옵니다.
주님이여,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주님이여, 나는 부러질지도 모르옵니다.
● 나를 한껏 당겨 주소서.
주님이여, 내가 부러진들 무슨 성관이 있겠나이까?

가장 숭고한 것을 찾아 방황한
카잔차키스의 위대한 정신의 고백!

인간과 사상과 정열을 찾아나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숭고한 인간정신과 그의 발자취, 참사랑을 위해 고뇌하고, 수도자의 자세로 순수를 불태우며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 그의 인간적 두혼, 神과의 처절한 투쟁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일회적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고백하는 카잔차키스의 뜨거운 영혼의 자서전!

니코스 카잔차키스/안정효 옮김
*크라운판/486면/값4,500원/♣서점에 있읍니다.



最新刊! 完譯版 *날권판매! ♣서점에 있읍니다.

8 전쟁과 神父 *안정효 옮김
한 신부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먼저 구하려 전쟁터로 뛰어들어 피를 흘리며 고뇌하는 영혼의 도정을 묘파한 충격적인 소설. *크라운판/324면/값2,800원

6 聖프란시스 *김성영 옮김
버려진 영혼이 신에게 귀의하기까지의 처절한 자아극복과 사랑을 통한 구원의 행로를 기록한 책. *크라운판/472면/값4,500원

7 돌의 庭園 *이윤기 옮김
한 젊은이가 여행에서 얻은 것들을 조용히 음미하면서 사상과 생명력을 응집한 순례기이며 체험기. *크라운판/296면/값2,800원

知性있는 독자들을 사로잡은 니코스 카잔차키스전집!
2 그리스人 조르바 3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4 예수다시 십자가에 못박히다 5 미칼레스 대장
6 7 8 오딧세이 ■ 근간

고려원 서울·종로구 수송동 46~22 서울 중앙사서함 제6622호 영업부 : (739) 7741~3 편집부 : (730) 8082~4